2023년도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발표

농진청, 소득 상위 작목 딸기 · 가지 · 장미 · 토마토 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023년에 생산된 51개 농산물에 대한 소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산물 소득조사는 농업인의 작목 선택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농업정책 · 연구 지원, 영농손실 보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기반으로 설계한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조사 결과, 단위 면적(10a)당 소득(이하, 소득)은 딸기(시설, 수경), 가지(시설), 장미(시설), 토마토(시설, 수경) 순으로 높았다.

대체로 시설작목 소득이 노지작목 소득보다 높았다. 시설작목 소득을 살펴보면, 딸기(수경) 1,467만원, 가지 1,306만원, 장미 1,284만원, 토마토(수경) 1,215만원, 딸기(토경) 1,150만원 등이다. 시금치 소득은 173만원으로, 시설작목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았다.

노지작목 소득은 포도 643만원, 블루베리 603만원, 생강 526만원, 사과 503만원, 배 36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밀 소득은 13만원으로 조사돼 전체 작목 가운데 밀이 소득이 가장 낮은 작목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소득이 증가한 작목은 총 25개, 소득이 감소한 작목은 총 26개로 분석됐다.

소득이 20% 이상 증가한 작목은 노지감귤(77.3%), 고구마(55.4%), 사과(49.6%), 들깨(39.0%) 등 9개 작목이다. 노지감귤은 출하기 기상이 양호해 수확량이 증가했고, 사과, 배 등 대체 과일 작황 부진으로 감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작목은 밀(△31.7%), 고랭지무(△26.2%) 등 5개 작목이다. 밀 소득이 줄어든 이유는 봄철 저온과 여름철 강우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랭지무 경우에는 2022년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기저효과로 가격이 하락해 소득이 줄었다.

농촌진흥청은 10월 중 '2023년도 농산물 소득자료집'을 발간해 농촌진흥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2023년도 농산물 소득자료집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 nongsaro .go.kr),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하두종 과장은 "2023년은 농자재 가격과 유가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시기인데, 상반기에는 날씨마저도 좋지 않았다"라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건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정 규모의 농산물 재배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효과 증명

식품연구원, 하상근 · 김동환 박사팀 쥐눈이콩 연구 결과

'초미니' 콩인 쥐눈이콩이 비(非)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을 돕는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지방간 연구회 자료에 따르면 비만 등의 이유로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국내 성인 유병률은 39.3%에 달한다.

또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지방대사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산화스트레스(활성산소)와 염증성 사이토킨(cytokine, 면역 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의 생성량을 늘린다.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 식품기능연구본부 기능성소재연구단 하상근 · 김동환 박사 연구팀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는 생쥐 10마리에 쥐눈이콩 추출물을 생쥐 체중 ㎏당 최대 0.2g을 투여한 결과 주목할 만한 지방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지방간을 앓는 생쥐에 12주간 쥐눈이콩 추출물을 투여한 뒤 경과를 지켜보았다. 그 결과 12주 후 생쥐의 체중 대비 간(肝) 크기가 쥐눈이콩을 먹기 전보다 50%까지 감소했다. 또한 혈중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 수준으로 개선됐으며, 간 손상 지표인 ALT와 AST의 혈중 농도도 각각 40%, 30% 감소했다.

ALT와 AST는 간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로, 간 손상 시 혈중으로 빠져나와 혈중 수치가 증가하게 된다.

쥐눈이콩 추출물의 지방간 개선 효과는 유전자 차원에서도 증명됐다. 생쥐에게 고지방 사료를 먹였을 때 지방간 유발 유전자인 SREBP-1c와 FAS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으나, 쥐눈이콩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이 두 유전자의 상태가 정상 수준으로 개선됐다. 반대로 지방간 유발을 억제하는 유전자인 AMPK의 인산화는 증가했다.

하상근 · 김동환 박사팀은 "쥐눈이콩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항산화 성분)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효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냈다"며 "쥐눈이콩이 염증 반응을 억제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비롯한 간 손상을 억제하고 간 건강을 돕는다는 것을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한국전력공사, 부안예술회관서 '사랑 나눔 콘서트' 개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와 부안지사(지사장 이상수)는 지난달 26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문화 나눔 활동을 통한 사회책임경영 실천을 위하여 '희망사랑 나눔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20년째 진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메세나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과 문화예술 단체의 상호 상생을 도모하고,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된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JTBC 풍류대장 출신의 소리꾼 오단해와 서진실을 주축으로 한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 '날다(NALDA)'가 '심청날다' 공연을 선보이며, 판소리 심청가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전통 국악의 아름다움과 현대 음악의 감성을 결합한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였다.

공연에 참석한 관객들은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고, 국악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옥기 기자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농기계 전문기업 티와이엠 방문

농기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도, 인공지능 기술 접목 농기계 제조업 미래 준비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난달 30일 익산 왕궁농공단지에 소재한 국내 농기계 제조 선두 기업인 ㈜티와이엠(대표 김희용, 김도훈)을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농기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티와이엠(TYM)은 1951년 설립된 중견기업으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다양한 농기계를 생산하며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TYM은 수출을 통해 전북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농기계 개발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자율주행 트랙터 성능시험에서 '선회 및 작업기 제어' 성능을 입증하며 또 한 번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난달 30일 익산 왕궁농공단지에 소재한 국내 농기계 제조 선두 기업인 ㈜티와이엠(대표 김희용, 김도훈)을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TYM은 현재 글로벌 시장 수요에 맞춰 제조공정의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로봇 기술을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지원했으며, 전북자치도의 기술 지원과 협력을 요청한 상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공모사업이 선정될 경우 TYM을 비롯한 도내 농기계 기업과 협력하여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전북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첨단 농기계 기술 개발, 판로 개척,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전북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TYM과 같은 농기계 전문기업들이 내수와 수출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농기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도와 기업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농협,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영일)은 지난달 30일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전북농협 임직원들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취지와 아동학대 예방방법 등을 설명 듣고,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한 다짐을 결의했다.

긍정양육이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자녀를 부모와의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양육방식을 뜻한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참여자가 2명의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장 곽미자 회장의 지목으로 참여한 김영일 총괄본부장은 다음 참여자로 한국전력공사전북본부 연원섭 본부장과 한국농어촌공사전북지역본부 이정문 본부장을 지목했다.

/김옥기 기자

바이오진흥원 지원사업 수혜기업, 'NS FOOD 페스타 2024 식품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 수상 실적 쾌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5월 '도전! J-스타트업 창업콘테스트'를 통해 도내 유망 20개사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애로혁신 멘토링, 기업별 맞춤형 기술 및 사업 고도화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20개사를 대상으로 창업기업 발굴-시제품제작-판로개척-마케팅 지원-혁신기술 강화-투자유치 교육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통해 스케일 벨류업(Scale Value-up) 및 기업 역량을 강화한 결과, 지난달 27일 익산시와 NS홈쇼핑 주최로 실시한 'NS FOOD 페스타 식품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반석산업과 ㈜에프엘컴퍼니 2개사가 출전하여 1차 선발된 8개사 중 각각 1, 2등에 해당하는 창의상(㈜반석산업)과 혁신상(㈜에프엘컴퍼니)을 수상하고 일천만원과 팔백만원의 상금을 수여받았다. 아울러, 금번 창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들은 향후 NS홈쇼핑에서 지원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등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사업'은 지역 내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보육센터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지역거점 창업보육센터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전북 도내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전주기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창업지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옥기 기자